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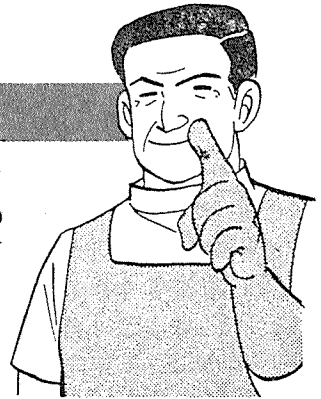
## 위장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1

## ⑤ 위장병과 식사

## 수술이 필요한 위장병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나 대장의 화이버 스크랩 등의 진보에 따라 지금은 위나 장의 많은 병을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위·십이지장궤양의 경우 90% 이상이 외과적 수술없이 치료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개복수술이 필요한 궤양

소화성궤양인 위·십이지장궤양은 대부분 식사요법이나 약으로 치료되지만, 난치성 궤양으로 장기간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나 다음 4가지의 경우에는 수술을 필요로 한다.

특히 다음 4가지의 경우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데 비해 난치성궤양의 경우는 내과적 치료로는 잘 낫지 않고 통증도 크기 때문에, 환자를 궤양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잘라버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 1. 위 천공의 경우

궤양이 심해져서 위나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려 버린 상태를 천공(穿孔)이라고 한다. 대부분이 십이지장궤양의 천공으로, 십이지장의 앞 벽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위의 뒷 벽에 궤양이 생겨 구멍이 뚫린 경우는 거기에 궤양이 있기 때문에 보호되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천통(穿通)이라 해서 구별하고 있다.

천공이 발생하면 심한 복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시 수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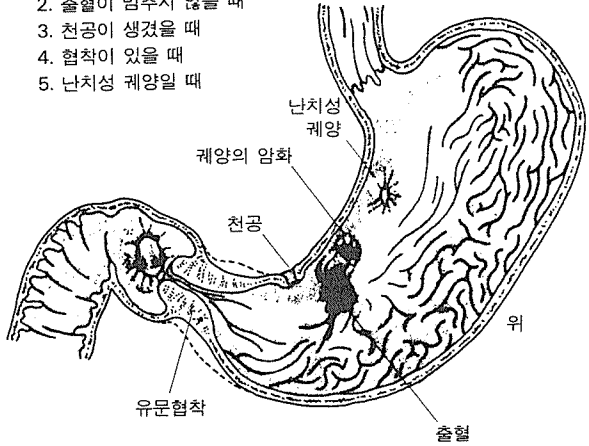
## 2. 출혈이 심한 경우

위·십이지장궤양에 의한 출혈이 있다고 해도, 최근에는 내시경 하에서 전기응고(電氣凝固), 레이저조사(照射) 등에 의해 치료가 행해지고 있어 개복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피가 멎지 않는 경우는 위험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

3. 유문협착(幽門狹窄)의 경우  
대부분 십이지장궤양에서 볼 수 있는데, 위의 출구(유문)가 좁아져서 위의 내용물이 통과할 수 없게 된 경우. 음식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

4. 암으로 전이된 경우  
궤양이 암으로 전이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어쨌든 궤양의 경과 중에 암이 발견되어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발견된 암은 거의가 조기암이기 때문에 수술에 의해 완치될 수 있다.

- 수술이 필요한 경우 ——
1. 궤양이 암으로 전이되었을 때
  2.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3. 천공이 생겼을 때
  4. 협착이 있을 때
  5. 난치성 궤양일 때



## 대장암의 수술

대장암도 조기암의 경우는 거의 중앙 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암으로 전이되고 있는 경우는 외과적 수술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에는 암이 전이된 부분을 큼직하게 잘라내는 동시에 암이 퍼지기 쉬운 주위의 조직이나 림프 등을 잘라 낸다.

대장암의 경우, 거의 진행된 케이스를 제외하고 70% 이상이 재발되지 않고 완전히 낫는다. 직장암 중에서 항문 가까운 곳에 생긴 암은 재발이 쉽기 때문에 복부와 항문 가까운 부분의 양쪽을 잘라 버리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대장의 잘린 부분을 복부에 이어붙여 인공항문을 만들고 이곳으로부터 대변을 내보내도록 한다. 이 인공항문은 생각만큼 불쾌한 것은 아니다.



유전부님과 똑같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2, 3개월은 입원해야 하겠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스트레스를 잊는 생활로 건강을 회복하셔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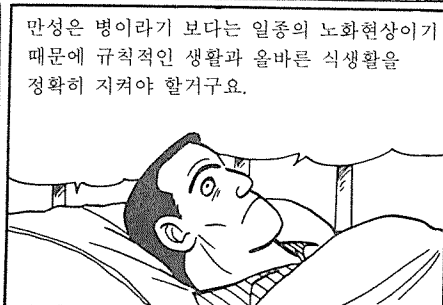


에에, 강차장님도 오늘은 진찰 관계로 오신거죠?



난 검사 결과, 궤양은 없었습니다. 역시 만성위염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밖에 없지만요.

위에 통증이 오는 것은 급성 위염의 경우인데,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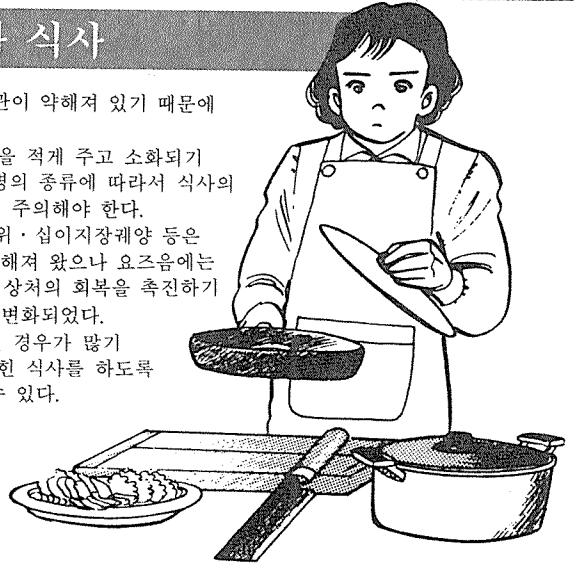
## 위장병과 식사

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소화기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식사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위점막, 장벽 등에 자극을 적게 주고 소화되기 좋은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병의 종류에 따라서 식사의 방침이나 내용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옛날의 방침이 바뀐 예도 있다. 즉, 위·십이지장궤양 등은 전에는 장기간에 걸친 절식 조치가 취해져 왔으나 요즘에는 상태를 봐서 일반식을 하도록 하거나 상처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영양식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었다.

위장병은 불규칙한 식생활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영양 밸런스가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1. 위염의 치료식(治療食)과 조리법

### 급성위염의 경우

증상이 심한 1~2일은 식사를 하지 말고 위를 쉬게 한다. 식욕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당질 중심의 유동식(流動食)을 먹도록 하고 그때부터 질·양적으로 정상식에 접근하도록 한다.

육류 등의 단백질성 식품은 지나치게 가열하면 굳어지므로 주의해서 익혀야 한다. 찌내는 등의 온열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야채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삶든가 데쳐내는 조리법을 사용하여 섬유를 절단하는 방법을 쓰도록 한다.

### 만성 위염의 경우

과산성(過酸性) 위염의 경우는,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는 식사를 피하고 영양섭취의 불균형이나 결핍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리의 기준은 소화성 궤양에 준한다.

저산성(低酸性) 위염의 경우는, 식욕부진이 장기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영양량을 확보하고 식욕증진에 힘쓰도록 한다.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분질은 충분히 가열하도록 하며 단백질은 지나치게 가열하지 않도록 한다. 야채는 가능한한 섬유질이 적은 것을 가열하여 사용한다. 식욕증진을 위해 고기스프, 향미 야채, 과일 등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변화시킨다.

## 2. 소화성 궤양의 치료식과 조리법

### 발증기(發症期)

두통, 구토 증세, 구토 등이 있는 기간에는 유동식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식을 먹는다. 단, 토혈, 하혈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

유동식(미음, 갈분탕)에 맛을 들이도록 하며, 죽은 단계에 맞는 재료를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복기

회복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을 섭취하여 궤양 부위의 치유에 신경을 써야 한다. 딱딱한 음식, 섬유질이 많은 음식, 자극성 음식을 피해 위산의 분비를 억제한다.

식사의 횟수는, 한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1일 4~6회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지(油脂)는 양질의 버터나 생크림이 좋은데, 지나친 가열로 산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사의 온도는, 위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사람의 체온 정도로 미지근한 것이 좋다.

## 3. 설사의 치료식

일반적인 설사는, 단식으로 시작해서 상태에 따라 단기간에 정상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원인 질환이 있는 설사는 그 질환의 치료가 불가결.

또 만성 위염에 의한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지방질이 많은 식품,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 요리, 차가운 요리, 알코올은 피하고 에너지, 미네랄,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 4. 변비의 치료식

대표적인 변비로는 이완성(弛緩性)변비와 경련성변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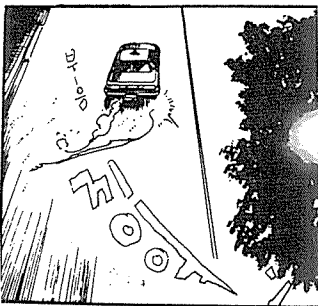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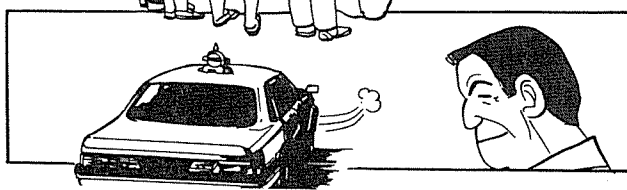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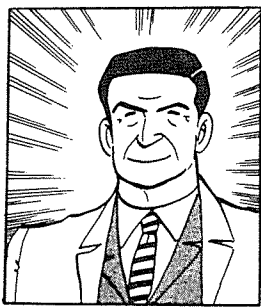
이완성은 장관(腸管)의 긴장이나 운동저하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 무력체질(無力體質), 임신부,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경우 등 일상생활의 변화하에 따라 일어난다. 변은 굵고 단단하다. 이 경우는, 야채, 해조류 등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고 차가운 물이나 우유를 마심으로써 장을 자극해 주는 것이 좋다.

경련성 변비는 이완성과는 반대로, 장관이 긴장되어 일어나는데, 변이 단단하고 토끼똥처럼 둥글둥글하다. 이런 경우는 장의 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극성 음식을 피하고, 섬유질이 적고 소화 잘되는 식품을 섭취하도록 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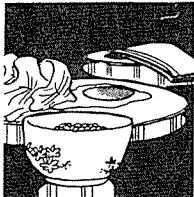
신세 많이 졌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회사에 돌아가셔서도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와, 정말 좋다.  
병원식사는  
정말이지  
영망이야.

하지만 당신  
식사는  
이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제부터는 절제  
하지 않으면  
안되지요.....  
그래요. 한번쯤  
병을 앓아보는

것도  
좋을지  
몰라요.



여보  
여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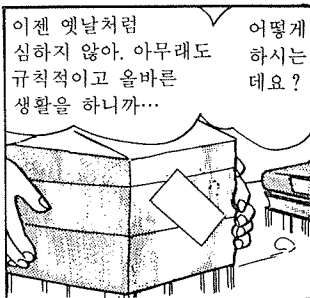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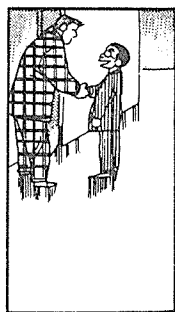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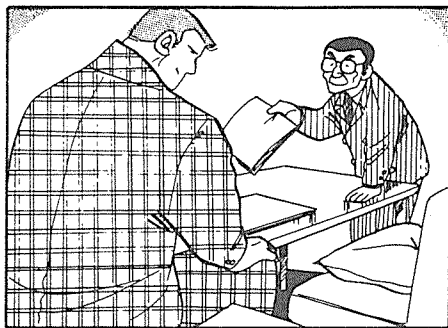


그래야 자기 몸을  
소중히 하지  
않겠어요?

그럴법한 애기야.  
생각해볼 일이야.  
전화위복이니까.



이영철씨나 강만호  
씨도 건강이 소중  
하다고 얘기  
하던걸요.



(계속)